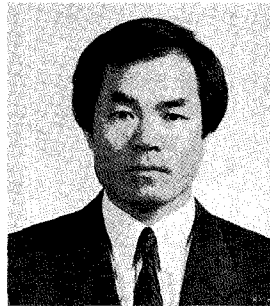




특 집

# 낙농육우산업의 IMF대응방안



김 인 식

본회 조직지도부 부장

IMF한파로 농업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수입사료에 의존하는 축산업은 타산업에 비할 바 없이 위기상황이다. 매일 급여하는 사료비 부담 때문에 적자 경영이 현실이라면 더이상 축산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경기가 얼어붙어 축산물 소비는 감소하고 생축가격마저 바닥세를 맴돌고 있어 농가에서는 이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추세가 계속하다 끝나게 될지 앞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농가의 불안은 더할 수 밖에 없다. 도처에서 축산이탈농가가 늘어가고 있고 불안한 분위기 때문에 갈수록 도산농가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그야말로 위기 상황

인 것이다.

이번 외환고로 인한 얼어붙은 경제를 걱정하면서 분야별로 많은 대책과 반성이 터져나오기 마련이고,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어떻게 하든 축산업은 지켜야 하고, 생산기반을 무너뜨려서는 아니되므로 낙농육우 산업에 있어서도 진지한 논의와 함께 대안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 배합사료 의존을 줄일수 밖에 없다

사료값은 지난해 연말 두차례에 걸쳐 40% 인상된데 이어 연초에 다시 10%선 인상 통보되고 있어 환율이 오르는 대로 또한번의 가격 인상이 있게 될 것이다. 가격도가 격이려니와 품질저하를 우려하는

농가들의 불멘 소리를 포함시킬 경우 실질가격은 더욱 큰폭 오름이 아닐 수 없다.

외상거래 구입 관행을 현금거래로 바뀌는가 하면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을 면세조치로 전환시키려는 발상이 논의되고 있어 농가부담을 조세제도로 추가하게 될 처지에 놓여있다.

물론 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와 농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서 대통령 당선자와 정당, 국회의원에게 가뜰이나 어려운 시점에서 세제부담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영세율 적용이 계속 되도록 건의하고 있다.

이렇듯 사료 가격으로 인한 문제는 농가의 한탄에 가까운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조세 수입에



# IMF시대의 낙농육우산업 생존전략

## 특 집

**낙농가의 경영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협회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원유가를 인상시키도록 하였다.**

**1,2,3등급은 18.7%인상시키고 4등급은  
9.4%인상시킨것은 유질향상을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환율은 1,250원선에서 인정하였으므로  
낙농가의 부담을 모두 해소하지는  
못했고 일부나마 덜어 주었다는 느낌이다.**

치중하는 등 축산농가의 입장과는 너무도 상반된 구상들이 추진된다. 이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비단 배합 사료 뿐만 아니다.

그동안 수입되던 풀사료와 기자재, 석유 등 수입원자재는 환율 때문에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해지거나 가격이 폭등하여 농가에게 부담을 안기고 있다.

사료수입 공급은 정상적으로 추진키로 하여 농림부가 각종 대책을 구사하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농림부의 애로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따라서 싫던 좋던 국내산 사료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농후사료에 의존하는 사양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면 농가에서 준비가 필요하다.

지난 가을에 벗짚준비가 그나마 되어 있다는 것이 다행이긴 하지만 국산조사료 확보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 논밭은 물론 논은 땅은 최대한 활용하여 풀을 심는 경영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사료자원이 될 수 있는 농산부산물과 음식찌꺼기도 대체방안이 될

수 있고 TMR지원 대책도 이루어져 국내 자원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산지초지의 부실화를 막고 이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부실초지를 환수하여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배부하는 방안도 있어야 한다.

값싸고 영양가가 높기때문에 수입사료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외화를 낭비하면서 값비싼 사료를 먹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입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우유 소비홍보 노력이 시급하다

낙농가의 경영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협회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원유가를 인상시키도록 하였다. 1,2,3등급은 18.7%인상시키고 4등급은 9.4%인상시킨것은 유질향상을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환율은 1,250원선에서 인정하였으므로 낙농가의 부담을 모두 해소하지는 못했고 일부나마 덜어 주었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원유가 인상은 우유수급 면에서 우려를 갖기도 한다. 겨울철 비수기인 데다 방학기이고 경기가 얼어붙어 가적인상된 소비자에 대한 소비감소가 그대로 드러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된 원유가 연일 수백여톤이 분유로 쌓여가는데다 일부업체에서는 생산제한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심상찮은 때이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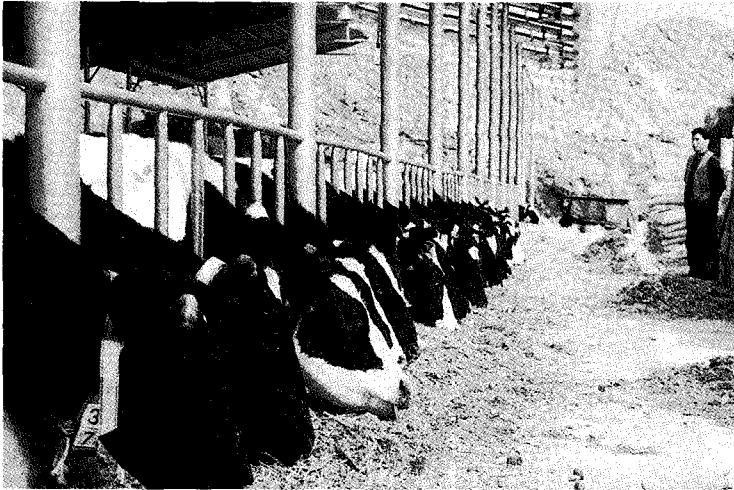
이에 원유가 인상이 되었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원유대 이외에 받아오던 유결개선비 등 지원비를 아예 줄이는 터에 실제 원유가 인상혜택을 전액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소비확대를 위한 노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협회를 비롯한 낙농가들의 경우 소비캠페인 전개와 함께 스티커, 리후렛 제작배포 등 한정적이거나 활동이 있을 수 있다.

또 소비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제품가인상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소비 확대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도 과제일 것이다.

유업체의 경우 늘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공동광고를 실시하고 새로운 홍보전략을 마련하여 비수기를 돌파하도록 해야 한다. 최선의 노력으로 소비확대를 꾀하되, 그래도 불가피할 경우 정부는 원유대 자금융자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재고가 쌓이고 정상적인 유대지급이 어려워 낙농가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농가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하기 때문이다. 또 국산분유 사용을 최대한 권장하고 원산지 표시단속을 강화하여 우유소비 확대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자칫 이번 겨울이 큰 고비가 될 것이다.

### 농가의 경영개선이 급하다

사료값 등 원자재 가격의 폭등과 소값 하락은 소 사육농가의 경영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기름값의 폭등으로 시설채소 농가와 함께 축산업이 환율피해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소값은 최고기 소비감소로 계속 떨어져 도축장에 몰려나온 소들이 며칠씩 계류하게되고 더 이상 비싼 사료를 축내기 전에 내다팔자는 불안심리가 가세하여 시장방매는 더욱 늘고 있다.

환율이 떨어져 사료값 등이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면 소를 붙잡고 있겠지만, 환율인하기미가 보이지 않고 사료값 추가인상 소문이 나도는 등의 불안정한 분위기에서는 어

쩔 수 없는 추세이다.

특히 젖소 송아지 초유떼기가 지역에 따라서는 5만원대에서도 매기가 없을 정도라면 더이상 소값 논의 자체가 의미를 잃고 있다.

한우의 경우 고급육의 값이 아예 나오지 않고 있어 고급육에 투자한 농가의 애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입육 가격이 환율 때문에 비싸고 국내도축이 늘기 때문에 하반기에 소값 상승의 가능성을 전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장 버틸 힘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외환사건으로 우리 낙농육우산업에도 일대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 틀림없다. 낙농의 경우 풀사료 위주 가족경영 규모가 가속화될 것이다.

정부의 지원정책 역시 가족중심의 전업농 육성에 집중될 것이다. 고용노동을 최소화하고 가족형으로 40~50두 착유농가로 정착되는 추세가 자리잡힐 것 같다. 시설투자 등 돈이드는 부문을 억제하고 기존시설 장비로 이용하도록 하는

가 하면 원유위생 등급에 치중하여 1등급 생산에 열중하게 될 것이다.

한우농가의 경우 다두사육 위주 규모화 위주 정책은 지양되고, 부업농 위주 농가 부산물 위주 사육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 비육 위주 다두 사육농가의 경우 수지가 안맞으면 언제든지 한우를 포기하고 개방시 수입 송아지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고급육 비육농가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고 농후사료에 의존하는 농가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상황에서 자구적 대책마련은 불가피하다.

소규모의 부업형 번식농가의 경우 부산물로 기르기 쉽고 생산비 개념을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될 뿐더러 한우 사육기반을 유지하는 중요성이 있다. 따라서 송아지가격 안정제가 실시되어 최소한의 송아지 가격지지가 있게되면 번식기반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국내 자원으로 소를 키우는 방향으로 급진전이 있어야하고, 농가들의 우려 못지않게 정부에서 경영개선과 부담완화를 위해 골몰하는 분위기다.

특히 한우농가들의 단합이 이시점에서 참으로 필요하다. 공동으로 대응하는 활동이 있어야 함에도 한우농가의 전국적인 단합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한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책마련이 있기를 기대한다면 그책임은 한우농가에 있다는 느낌이다. 어려울때 일수록 단합하여 지혜를 모으는 대책이 절실한 것이다.



## 특 집

### 낙농육우의 단결력으로 풀어야

사실 IMF한파의 피해가 가장 큰 부분이 축산이면서도 소리 한번 지를 수 없는 양축가들로서는 답답하기 그지없다. 책임자를 찾아 하소연할수도 없는 처지이고 화풀이 대상마저 찾을 수 없으니 딱할 뿐이다. 국민 모두가 겪는 고통일수 있고 나라전체의 부도위기로 표현되기에 속 시원히 털어놓기조차 어려운 지경이다.

따라서 농가들로서는 자구대책 마련에 솔선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의 지도나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소 사육 농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대응 노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가족 모두가 노동력을 최대한 이용하여 적정규모화로 전환시켜야 하고, 국산자원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유질위주, 육질위주로 한국화를 강조할수 있도록 방향이 정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설령 IMF한파가 가신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우리우유 우리 한우를 찾도록 하자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과제이다.

나아가 농가의 단합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있어야 한다. 농가수는 줄어들고 줄어드는 비율만큼 협회 회원수도 감소한다. 협회의 대외적인 힘도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다. 어려울수록 낙농육우 농가를 대변하고 권익을 지키려는

협회에 뭉쳐야만 대응력을 발휘할 수 있다. 참여하는 농가 따로있고 불참농가 따로 있는한 문제를 풀기는 어렵다.

특히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행정 부나 국회를 거쳐야 하는 과제에 있어서는 단합된 농민의 힘을 바탕으로 협회가 나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협회존립의 필요성이나 존재가치는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가입하지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비근한 예로 낙농가들이 강력히 요구했던 원유가현실화 문제를 두고서 만감이 교차하는 느낌이다. 협회가 주도하여 농가들의 요구에 다소 미흡하나마 인상되었다면 협회회원만의 혜택일 수 없다.

그럼에도 당연히 협회에서는 해야 할 사명인양 이해하고 동참에는 외면하는 낙농가들이 있는한 낙농 문제를 쉽게 풀 대안은 없다. 한우 농가 역시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소리는 높아도 뭉쳐서 힘을 키워 공동대응하지는 제안에는 회피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낙농육우산업의 문제를 소 사육농가 단합없이 누가 대신 해결해 주기를 기대해서는 아니된다. 소사육농가 스스로 뭉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흔히 정부정책 부재나 잘잘못을 따지는 것으로 농민단체의 역할에 비중을 두지만 이것역시 단체의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 목장내부의 과제가 농가 자체의 몫이라면 목장 외부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과제의

해결은 단체에 맡겨야 한다. 바로 단체 가입이 그런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농업선진국치고 농민단체가 약한 나라가 없고 농민단체에 농민가입은 당연시 되고 있다. 단합하지 않고 해결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 단체의 과감한 개혁신의 있어야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의 직원입장에서 농가의 도산이 속출하는 참상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죄송한 느낌이 든다. 때로는 죄의식을 느낄만큼 자신의 능력에 한계를 인정한다. 과연 얼마만큼 소 사육농민의 권익에 기여하고 있는지 부끄러움을 감출수 없음도 사실이다. 반성하면서 잘해보리라는 자책감으로 협회장을 중심으로 뭉쳐야 됨을 실감하고 있다.

농가들이 어려운 만큼 직원들이 충실해야 하고 소사육농민이 필요로 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협회에서도 나름대로 내뱉을 강조하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나아가 농가들의 요구에 일치하는 활동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결국 협회의 주인은 협회에 가입한 소사육농민 회원이기에 주인에게 충실한 심부름꾼이어야 한다. 회원의 평가에 따라서 협회의 존재가치가 발휘될 것이고, 또 채택도 필요할 것이다.

지역농가 대표인 대의원과 임원의 의결기구인 총회나 이사회 결의

에 따라 충실해야 할 기본 사명감을 직원들이 일해 나갈 것이다.

모든 축산단체들이 시대상황에 맞추어 개혁을 추진하려하고 있고 우리협회 역시 적극 동참하고 있다.

협회자체의 반성과 활성화만으로는 낙농육우산업 나아가 축산산업의 활로모색은 한계가 있다. 최근 정권인수과정에서 개혁과제로 제기된 정부기구의 개편과 농축산 관련 조직의 통폐합 역시 이런 맥락에서 제안된 과제일 것이다.

농민수는 줄고 있음에도 농관련 조직원수는 늘고 있다거나 협동조합의 기능문제가 지적된다면 자체 반성과 혁신이 있어야 한다.

축산이름을 팔아 먹고사는 조직 혹은 농업팔아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그늘진 구석을 투명하게 하지 않고서는 농업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전반의 분위기가 거품제거를 요청함에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때문에 저항에 부딪힌다면 외압에 의한 개혁이 불가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축산관련 조직도 자성의 노력과 함께 중복기능이나 효율성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된다면 통폐합등 과감한 개혁이 불가피 하다.

아울러 업계에도 농민과의 공존의식이 있어야 할것이다. 환율만 안정된다면 수입쇠고기로 돈벌이 하려는데 혈안이 된다면 한우산업 발전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환율만 내려가면 모조분유 수입을 하려고 계산하고 있는한 국내

낙농업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농민이 있어야 이차적 산업이 존속한다는 공동운명체적 기업이 필요한 때이다.

또 축산단체들이 이제는 생산한 제품의 소비촉진과 판로확보를 위해 소비자단체등과 접촉 활동에도 관심을 쏟아야하는 시점에 와 있다.

##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이 있어야

어려움이 더해갈수록 정부의 대책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최근 정부관계자 역시 행정 공무원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축산국 중심으로 분주히 움직이는 것을 보아 왔다.

축종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가현지의 경영애로를 직접확인하는가 하면 사료문제 해소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는등 대책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곤 한다. 시급한 현안문제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낙농육우산업에 부과된 제도적 과제해결에도 차질 없기를 바라는 것이 농가의 바람일 것이다.

한우문제는 지난해 한우산업 종합대책방안을 농림부가 제시한바 있다. 장시간의 논의와 공개토론회 등 점검과정을 거쳐 대책이 마련되었다면 환율문제로 여건이 바뀐 부분의 수정은 있다하더라도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해야한다.

특히 송아지가격 안정제의 연내 실시는 농림부 장관을 비롯한 정책 책임자들의 한결같은 약속이었으

므로 반드시 실현 되어야 한다.

송아지 가격 최소한 보장없이는 한우 기반자체가 붕괴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낙농의 경우 낙농진흥법 개정과 낙농진흥회 사무국이 설치되어 많은 낙농기술이 차질없는 제도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진흥회 업무의 진행과정을 협회가 문의해 오는 낙농가들이 많다. 그때마다 99년1월부터 개선되는 제도의 행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바쁘리라는 생각은 들지만, 진흥회 사무국에서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으로 믿고 있다.

원유검사 공영화의 주체선정과 함께 후속준비, 집유구역 선정과 함께 새로운 집유노선의 소비문제, 계약생산준비등 굵직한 사안들이 상반기중에 종료되고 후반기에는 시행연습단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다.

또 축발기금고갈에 따른 지원제한 확보를 위해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이관은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대로 새정부가 바로 시행해서 활력소가 되도록 해야한다.

작은정부의 노력이 실효가 있기 위해서 지방농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아울러 농민단체 육성에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축산의 경우 소, 돼지, 닭, 단체장만이라도 활성화시켜서 제대로 기능발휘가 되도록한다면 어려움 극복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